

석유화학, 피크기 앞둔 수익개선 분주

ExxonMobil · Dow 회복세 두드러져 ... 에너지 · 원료코스트 감축 관건

세계 석유화학 시장이 약 10년 동안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최근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미국 제조업의 경기회복 및 급성장하는 중국경제에 힘입어 2003년 가을부터 석유화학 시장은 수요세가 회복되기 시작했다.

이에 따라 최근 세계 석유화학 시장은 이용률(Utilization Rate)이 상승하고 있으며 마진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다만, 에너지 및 원료코스트가 여전히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락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위험요소로 남아있다.

석유화학기업 가운데 특히 ExxonMobil 및 Dow Chemical이 세계적인 공급 및 생산기반, 원료 융통성 및 아시아 시장 진출에 힘입어 가장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, 중동 지역에서는 Sabic이 저코스트 원료의 이점을 바탕으로 2003년 전체 수익이 67억1600만SR(약 17억9000만달러)로 전년대비 100% 증가하고 매출은 총 471억SR(126억달러)로 39% 증가했다.

이외에 대부분의 다른 석유화학기업들은 2003년 수익실적이 저조했으나 2004년에는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북미 석유화학기업 가운데 Nova Chemicals 및 Equistar Chemical은 2003년 적자를 기록했으나 2002년에 비해 적자폭이 줄어들었으며 Chevron Phillips Chemical(CPCChem)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.

그러나 대부분의 세계 석유 메이저들은 석유화학 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, Shell Chemical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마진악화로 적자를 기록했다.

Shell Chemical은 2002년 순수익 2억2000만달러를 올렸으나 2003년에는 구조조정 비용 4억7800만달러를 포함해 총 4억89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. 또한 BP의 화학 사업 수익은 6억600만달러로 21% 감소했다.

Dow Chemical에 따르면,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수급이 더욱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되나 원료 및 에너지 코스트 강세가 석유화학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다.

Dow Chemical은 2003년 순수익 17억달러를 기록해 2002년 3억3800만달러의 적자에서 벗어났다. 마진도 13억달러 가까이 회복됐으나 1995년 이후 잃은 마진규모인 89억달러의 15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석유화학기업들은 최근의 탄화수소 코스트 강세 속에서 코스트 감축 및 원료공급 소스 다양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.

Dow는 1990년 이후 생산라인 한대 당 에너지소비를 1/3 이상 감축했으며 앞으로 파운드당 에너지 소비량은 연평균 약 2% 줄여나갈 계획이다.

Dow는 최근 원료배합을 최적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정 원료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거나 쿠웨이트 및 말레이시아 등 저코스트 원료수급 지역의 생산을 확대하는 등 코스트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물리적, 재정적 방어를 통해 원료코스트 폭등에 대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2004/08/02>